Book News 책의 선물
홍성사 121-885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77-9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 E-mail:hsbooks@hsbooks.com
2003. 9-10월

"뭐, 판타지에 영성을 담았다구?"

인간 본성을 간파한 통찰력 담은 신학적 공상소설

천국과 지옥의 이혼

C. S. 루이스 지음 | 김선형 옮김 | 믿음의 글들 202 | A5신변형 | 양장 | 192면 | 8,800원

C. S. 루이스가 영문학자로서 어느 정도 실력을 인정받은 것은 분명했지만, 교내校內 정치력을 전혀 갖지 못해서 옥스퍼드에서 30년간 가르치고도 그곳에선 정교수로 선출되지 못했고, 60세가 되기까지 독신으로 살아 한 명의 자녀도 세상에 남기지 못하고 떠나간 아쉬운 삶을 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이 세상을 떠난 지 40년이 지난 오늘, 그리고 그가 살던 문화의 틀 이후 벌써 수차례 사고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버린 지금, 영어권뿐 아니라 다문화·다언어권 사회의 신앙과 정신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현실은 믿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루이스의 세계와 오늘 한국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연결점이 있기에 그의 글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널리 읽히고 또 감명을 끼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불신의 시대에 맞선, 지성과 상상력 담은 대표작

어릴 때 잃었던 신앙을 서른셋의 나이에 다시 찾은 그는 '후 기독교 사회post-Christian world'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전파하는 전도자라는 자아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후 기독교'란 당시 유럽 문화를 일컫는 말로, 기독교의 전성기가 지나고 다시 불신앙의 시대로 접어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루이스가 판단하기로는, '후 기독교' 시대가 '전 기독교pre-Christian' 시대(즉, 기독교를 아직 받아들이기 전 여러 고대 종교가 판치던 때)보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때입니다. 문화적 기독교, 윤리주의, 자유주의가 판치고, 기독교 신앙의 초자연주의와 참 구원의 메시지가 땅에 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루이스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즉 역사적인 기독교의 가장 구심점이 되는 메시지를 변듀이는 지성과 놀라운 상상력을 동원하여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어권 사회에 루이스에 대한 관심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루이스의 글이 번역되어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인간의 종교적 심리를 파헤치는 그의 통찰력입니다. 그에게는 죄에 대한 심오한 이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루이스의 생각과 방법론을 대표할 만한 글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더 잘 알려진 글들이 있지만, 《천국과 지옥의 이혼》은 마치 에스프레소 커피를 마시는 것 같은 농축된 짜릿한 맛을 느끼게 하는 지극히 루이스 다운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루이스가 그토록 사랑하던 문학 형태인 판타지fantasy의 하나로 봐야 합니다. 루이스가 서문에서 말한 대로 이것은 공상문학입니다("I beg readers to remember that this is a fantasy").

그러나 이 공상문학 속에 담긴 것은, 인간의 마음을 죄와 구원이라는 틀 안에서 간파하는 통찰력입니다. 이 책이 오늘 이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과 이기주의, 그리고 무엇보다 잘못된 신앙에서 비롯되는 복음에 대한 오해를 잘 드러내 보여 주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서 우리는 신앙을 자기 내면 세계와 연결하지 못하고 머리로만 따지려 드는 성직자의 모습도 보고, 자신의 보잘것없는 의를 드러내며 은혜의 품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윤리주의자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지 못하며 아들이 자기를 떠나서는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오해를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며 독자들이 어색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 묘사에 바로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발견 때문일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루이스가 주장하는 죄의 모습은 자기집착입니다. 이러한 자기집착은 사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 판치는 타락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육신을 벗게 될 때 자기집착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극단적으로 치닫게 될 터인데, 그것이 곧 지옥의 모습이 되리라는 게 루이스의 추측입니다.

지옥 유령들, 천국행 버스를 타고 여행을 떠난다
그들은 왜 천국의 풀과 빗방울조차 두려운 걸까?
'내 뜻'대로 되어야 하는 자기집착의 종착역이 지옥

끝없는 자기집착으로 인해 '블랙홀'처럼 하도 안으로만 빨려 들어가다 보니 결국 비물질적인 유령Ghost의 세계인 지옥이 이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돌멩이만한 크기도 안 될 거라는 상상은 또 얼마나 흥미로운지요.

루이스의 신학에 대한 성급한 판단은 금물

C. S. 루이스를 연구하는 몇몇 학자들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을 근거로 상아, 영원히 반복되는 선택의 기회가 사후의 영혼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신앙을 그가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결국 모두가 구원 얻게 될 것이라는 보편구원설universalism을 믿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루이스의 전반적인 신학적 사고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의 중심 되는 논지를 오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는 지옥을 떠나 결국 천국에 입성하는 새 삶을 누리게 되는 인물이 단 한 명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에피소드를 잘 보면, 육신을 벗은 사후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고민하는 음욕lust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 한 남성이 타락한 성적 욕구를 하나님의 사자가 내미는 심판의 손에 내맡길 때 비로소 벗지고 아름답게 변화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루이스의 내세관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주장입니다.

사실 루이스의 신학은 쉽게 분류되지가 않습니다. 그의 초자연주의는 복음주의 냄새를 풍기지만 그의 성경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의 구원론은 그리스도의 대속 개념을 내포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대속substitutionary atonement 신앙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루이스의 신학적 입장을 우리 입장이 아니면 무조건 다 틀렸다는 단순한 흑백논리로 본다면 누구도 루이스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방법은 루이스를 루이스 자신의 사고틀 안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그가 하는 말의 논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마음에서 우러난 진솔한 외침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에 온전히 설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 독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분명 루이스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혼》 '해설'에서 발췌

박성일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를 졸업하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석사(M.Div.)와 (C. S. 루이스의 신학)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현재 필라델피아 기쁨의교회 담임목사이며,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강사로 있다.

지면안내

■ 화제의 신간
대천덕 신부 유고작 (대천덕 신부가 말하는 토지와 경제정의)
VS.
대 신부의 비원이 담긴 책 (K.A.L 007, 물리지 않는 의혹들)

■ 이 책을 말한다
1. 《내게 있는 것》 2. 《예수는 평신도였다》

'루이스 클래식' 권하는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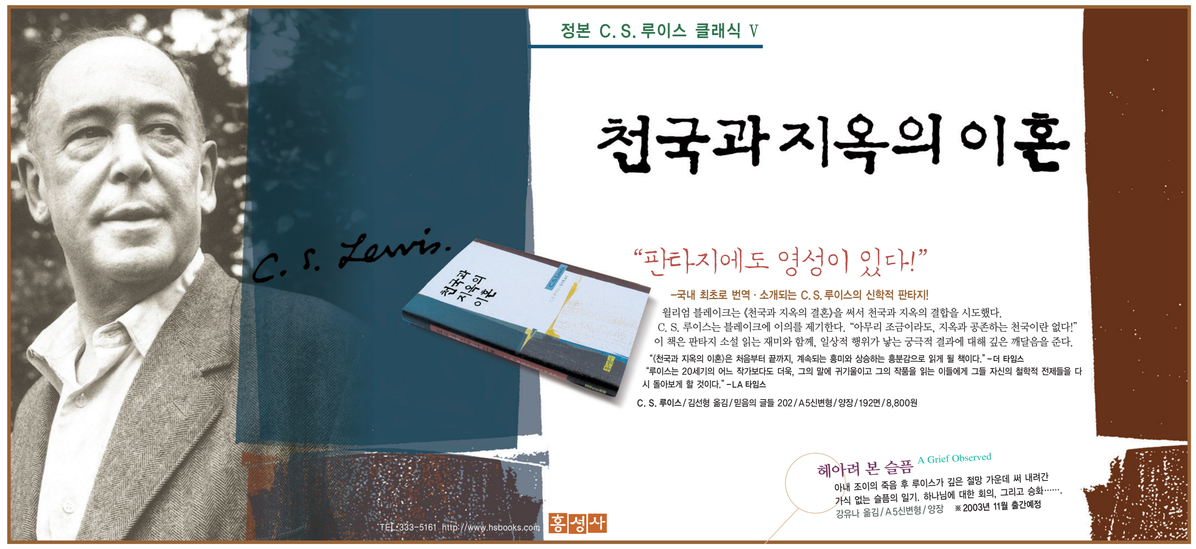
천국과 지옥의 이혼
"루이스는 이 책에서 자기집착과 자기중심성을 다벼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지옥을 벗어나 천국에 이르는 공극의 열쇠로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아주 재미있고 루이스의 깊이 있는 사상을 접할 수 있는 훌륭한 책이라 생각한다." -김도일/서울대대학원 외교학과 석사과정
A5신변형/양장/183면

예기치 못한 기쁨
"새학기를 시작하는 지성인 후배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신앙에 회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주변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기에 당신과 같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한 지성인이 있노라고 말해 주어도 좋을 법하다." -안광국/온누리교회 목사, 두란노 천한인큐티운동본부 A5신변형/양장/352면

고통의 문제
"고전의 가치는 시대가 변하여도 흔들리지 않는다. 고전은 거대한 물줄기의 지류가 아닌 원류를 일컫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C. 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는 분명 고전이고 원류라고 말할 수 있다." -전병욱/상일교회 담임목사 A5신변형/양장/284면

순전한 기독교
"아마 기독교 역사상, 생각하는 불신자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인도하는 일에 이 책만큼 괴력을 발휘한 책은 없을 듯하다. ……나는 최근에 이 책을 다시 읽게 되었는데, 내가 선택한 기독교 신앙의 깊이 후회할 필요 없는 선택임을 다시 감사할 수 있었다." -이동원/지구촌교회 담임목사 A5신변형/양장/352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책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이 작은 책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가장 기본적으로 읽어야 할 책 가운데 한 권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유진 피터슨의 언사가 결코 의례적 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공감하게 된다." -이성훈/정신문화연구원 교수 A5신변형/양장/202면



현재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성토모) 회장을 맡고 계신데, 대 신부님과는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요?

저는 대 신부님을 1991년 12월에 처음 만났습니다. 몇몇 가정과 함께 예수원을 방문했는데, 신부님께서는 몸이 편찮으신 중에도 우리를 맥으로 초대하셔서 다과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우리 중 몇 사람이 경제학을 전공한다는 사실을 아시고는, 너무 기뻐하시며 서재에서 두꺼운 책 몇 권을 갖고 나와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책은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영문판이었는데, 그때 저는 그 책이 얼마나 귀중한 책인지 알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 책꽂이에 그냥 꽂아 두었지요. 그 후 대 신부님의 책을 읽으면서 성경적 관점에서 경제학을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고, 《진보와 빈곤》을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 1월 예수원에서 개최된 토지학교에서 저는 대 신부님의 안수를 받으며 성토모의 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생전에 대 신부님이, 전 세계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자 애쓰는 모임은 성토모밖에 없다고 하시며 저희를 격려해 주시던 모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 신부님과 관련하여 기억나는 개인적 일화가 있다면…….

예수원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예수원에서 연구와 양육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세우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대 신부님의 생각을 여쭈어 본 일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대 신부님은 "나는 그것을 위해 오래 전부터 기도해 왔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은 대 신부님 맏년에 삼수령 연수원 프로젝트로 가시화되었고 지금 한창 추진 중입니다.

이번 대 신부님의 책은 '성경적 토지법'을 주제로 쓴 것으로는 국내에서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책 내용을 경제학자로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헨리 조지는 성경적 토지법의 정신을 경제학적 개념과 논리로 잘 풀어냈지만, 막상 성경적 토지법 그 자체에 관해 상세하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대 신부님의 책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 드러난 성경적 토지법의 내용과 그 적용 역사를 명쾌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헨리 조지의 사상은 대 신부님의 연구를 통해 비로소 분명한 신학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 신부님은 많은 곳에서 경제학적 진술을 하고 계신데, 그것들은 전문 경제학자의 진술과 비교해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이 책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의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한국은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특히 토지문제가 심각합니다. 토지문제가 심각한 해악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렇다할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 해결책의 실마리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정의에 목말라 있던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경제문제까지 정의롭게 해결하실 수 있는 참 구원자이심을 확인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인터뷰 진행●옥명호/편집장(okdol@hsbooks.com)

이 글은 《클릭보》 8·9월호에 게재된 것입니다.

"내 생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한빈은 대천덕 신부와 아주 가까운 분이 "신부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이라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때 대 신부님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외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대천덕 신부는 특히 인생의 맏년에 공의에 관해 말하고 공의의 기초인 성경적 토지법을 외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성령 세례를 중시하고 복음주의적 전통에 서 있던 그가 어째서 이런 문제에 그토록 집착했을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그분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다.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분리될 수 없다. 물질적인 문제는 기도와 영적 전쟁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으며, 영적인 문제는 현실의 삶, 즉 실제적인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다."

– '울긴이의 말' 에서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로서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회장, 《토지를 중심으로 본 경제이야기》(CUP)를 썼으며, 《현대경제학과 청지기 윤리》(IVP) 등을 공역했다.

생전에 대천덕 신부는 왜 그토록 이 책을 기다렸나?

생전에 보내 온 대천덕 신부의 편지 전문

KAL 007, 풀리지 않는 의혹들

1983년 대한항공 007기 추락과 그 생존자들에 관한 숨겨진 이야기

버트 슬로스버그 지음 | 홍종락 옮김 | 248면 | 8,500원

정에주 사장님

영어로 쓰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한국어의 한계를 잘 아시지요?

귀사에서 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펜을 들었습니다. (*Rescue 007*)(한국어판의 원제)이라는 책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Evangelical Apostolic 교회의 목사 버트 슬로스버그가 쓴 책입니다. 러시아 (사할린 부근의) 모네론 섬에 격추당한 KAL 0077기 승객 중에 슬로스버그의 아내의 삼촌과 사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러시아 정부 고위급 인사였던 한 유태인 망명자가 예루살렘에 와서 슬로스버그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KAL 0077기가 사실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문제에 관해 몇 차례 열린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자료들과도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실을 책으로 출간하려 했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정부나라에 의해 좌절되었습니다. 슬로스버그는 이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와서 보았느니라"의 사건이며, 이것은 또한 영적 전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이 사실에 관한 정보가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며 보통 사람들의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불행한 사람들은 거의 19년째 시베리아 노동 수용소에 있는데, 13년 동안 민간항공기구(CAO)가 이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 죄 없는 이 사람들을 풀어 준다거나 아니면 이들의 끔찍한 상황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조차도 아무 조처도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 아들 벤이 POW/MIA(전쟁 포로와 전쟁 중 행방불명되었던 군인들의 모임)와 함께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벤에게 묻는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저는 이 문제를 아무나가 아니라 기도하는 크리스천들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책 출간이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기도 하지만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서문을 제가 직접 쓰고 싶습니다). 동시에 비행기에 탔던 136명의 한국인들의 친인척들에게 보내기 위해서도 한국 어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련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자 KAL 007 인양 작전의 사령관이었던 블라디미르 바실리예비치 시도로프에 따르면, KAL 0077이 '추락' 한지 27분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련 선박들은 시체이든 생존자이든 해수면에서 단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승객과 승무원은 그들의 무덤이 되어 버린 칠흑 비행기의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발견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KAL 0077의 수중 잔해 속에도 시체가 전혀 없었다면, 소련 당국의 지시로 현장에 잠수했던 소련 민간 잠수부들이 KAL 007 사고 8년 후 당시의 당혹스러웠던 기억을 되살리며 밝혔던 것처럼 그것은 반드시 풀어야 할 참으로 엄청난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다.

KAL 0077기의 승객과 승무원들은 어디에 있을까? – '머리말' 부분

저희의 (영적) 전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대천덕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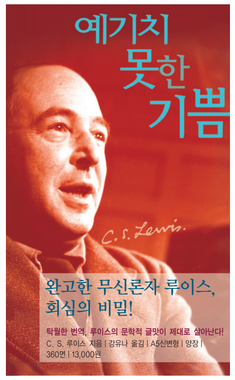
※이 편지를 쓴 날은 2001년 2월 18일로 되어 있다. 그로부터 여섯 달이 지난 8월 16일에 대천덕 신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도 예수원에서는 KAL 0077기 생존자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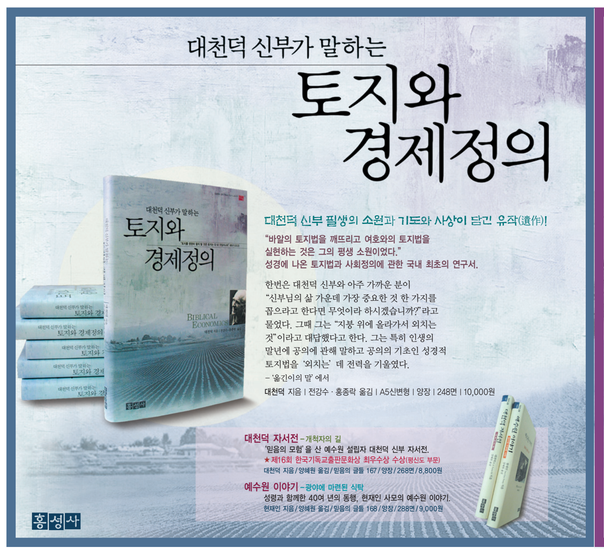
20년이 지난 지금, KAL 007 승객과 승무원들은 어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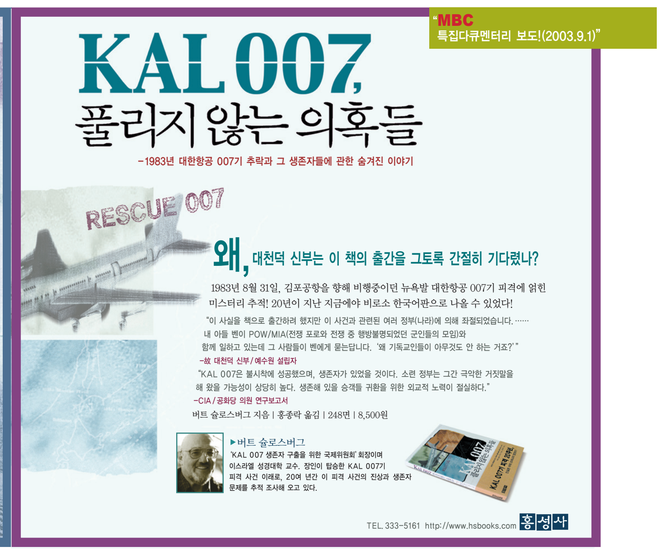
1983년 9월 1일, 비운의 대한항공 007기에 탑승했던 승객과 승무원 269명이 모두 사라졌다. 그 비행기에는 나의 장인어른도 타고 있었다. 나는 이 사건을 파고들었고, 그 과정에서 수수께끼의 핵심 내용이 분명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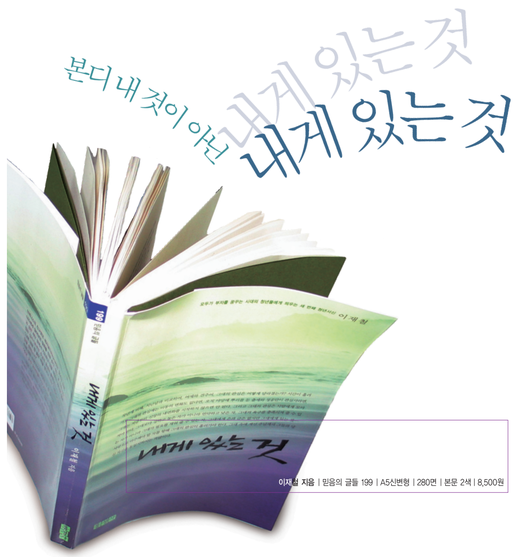
소련군이 격추시킨 그 제트기는 군용기가 아니라 민간 여객기였다. 소련군 참모총장 니콜라이 오가르코프(Nicolay Ogarkov) 원수는 사고 나흘 후에 이 사실을 인정했다. 물론 우리는 모두 사고 첫 날부터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비행기에 타고 있던 269명이 넘는 사람들은 생사 여부를 떠나 물 속에서건 뭍 위에서건 분명히 발견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소련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자 KAL 007 인양 작전의 사령관이었던 블라디미르 바실리예비치 시도로프에 따르면, KAL 0077이 '추락' 한지 27분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련 선박들은 시체이든 생존자이든 해수면에서 단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승객과 승무원은 그들의 무덤이 되어 버린 칠흑 비행기의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발견되었어야 한다.









지난 해 12월 로또복권이 발매된 이후로 '인생역전' 은 시대를 읽는 코드가 되었다. 모두들 재미로 해본다고는 하지만 요행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 역시 없을 것이다. 행운에 희망을 두는 사회가 건강할 수 있는가? 일본의 문화 식민지 시절 우리의 민족정신을 말살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가 '도박' 이었다. 건전한 노동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 땀과 노력 없는 부에 대한 욕망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과연 많은 돈을 거머쥐는 것이 과연 '인생역전' 일까? 적어도 이 시대는 그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새로운 복권 발매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최근 수년간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살펴보면 재테크, 소위 부자 되는 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 일부 책들은 어릴 때부터 재테크 정신을 심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자가 되고 싶은 어른들이 자신들의 꿈을 어린아이들에게까지 투사시키기까지 모두들 부자가 되기를 꿈꾸고 있다.

3년 전 신대원 사경회를 통하여 처음 이재철 목사님을 알게 된 이후, 이번 신간 《내게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반가움을 금치 못했다. "모두가 부자를 꿈꾸는 시대와 청년들에게 픽우는 세 번째 청년서신"이라는 부제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화두가 아닐까 생각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고자 노력한다. 소크라테스 이후로 인간에 대해 관심을 두기 시작한 철학은 수없이 인간 존재에 대한 의미를 찾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존재의 의미를 증명할 수 없었다.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존재로서 자신의 확실성을 찾고자 노력했지만, 중국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인 장자의 나비 꿈을 생각한다면 이 역시 확실치 못하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인생의 중심을 잡아야 할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약 4:14)을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책은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겁이 많았던 기드온에게 특별한 일이 벌어졌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 (삿 6:34)하신 것이다. 본문의 '강림하다' 는 히브리어로 '옷입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수동형으로 사용되었다. 의미를 살려 번역하자면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을 입으셨다' 로 번역할 수 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을 입으셨기 때문에 겁모습은 기드온이었지만 그 속은 여호와시라는 의미이다. '내 안에 있는 것' 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부자의 꿈' 에 사로잡힌 시대에 절실한 화두

이 책은 베드로의 삶을 철저히 추적한다.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신이 미처 깨닫지도 못한 것을 겁 없이 말했다.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 변화산에 초가를 마련하고자 했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철저히 예수를 배신하고 그 눈을 본 후 통한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후에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동자를 바라본 베드로는 그 사랑에 감염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생애는 자신 안에 있는 유일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뿐이었다.

시지프스를 아는가? 그는 그리스의 유명한 상업도시 고린도를 창건한 신화 속의 인물이다. 그는 신의 노여움을 사 커다란 바위를 산꼭대기에 올려놓는 벌을 받았다. 그러나 바위는 언제나 아래로 굴러 떨어졌고 그는 다시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려야만 했다.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을 계속 해야만 하는 신의 저주였다.

'내게 있는 것' 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본래 내 안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낮은 땅에 찾아오신 분의 은혜로 인한, 그분 자신이다. 우리 자신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를 위해 육신이 되신 예수 한 분밖에 없다. 그밖의 나를 채우려는 수많은 노력들은 시지프스의 바위가 될 수밖에 없다.

세상에 있으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황제의 논리 앞에서 담대히 영원한 논리를 말할 수 있는 청년이 되고자 하는가? 우리는 이 책을 통하여 분명한 해답을 얻을 것이다. 비록 우리가 대제사장 집의 베드로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내게 있는 것' 을 고백하는 베드로와 같이 될 수 있는 소망이 있다.

●김명환/높은뜻승의교회 청년양육부 전도사

"신앙적 열등감을 갖게 한 책"

나는 무수한 책을 추천했지만, 이 책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하면서 읽은 것은 없다. 이 책을 읽고 나는 내가 추천서를 쓸 자격이 없음을 발견했다. 이 책에 반영된 정진호 교수의 신앙은 나의 신앙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순수하며, 성경의 가르침과 한국 교회를 보는 그의 통찰력은 나의 것보다 더 참신하고 건강하며, 신앙에 입각한 그의 용기는 내가 평생 가져 보지 못한 것이며, 그가 그의 생각과 경험을 표현한 그의 글 솜씨는 평생 글을 써 온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임을 발견한 것이다.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정 교수로부터 많이 배워야 할 사람이고, 그를 좀 더 닮아야 할 사람임을 느낀다. 정말 많은 자극과 도움을 받았다.

내가 이 책을 추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이가 많다는 것과, 자격과 무관하게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뿐이다. 그것이라도 이용하여 정말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을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내가 그나마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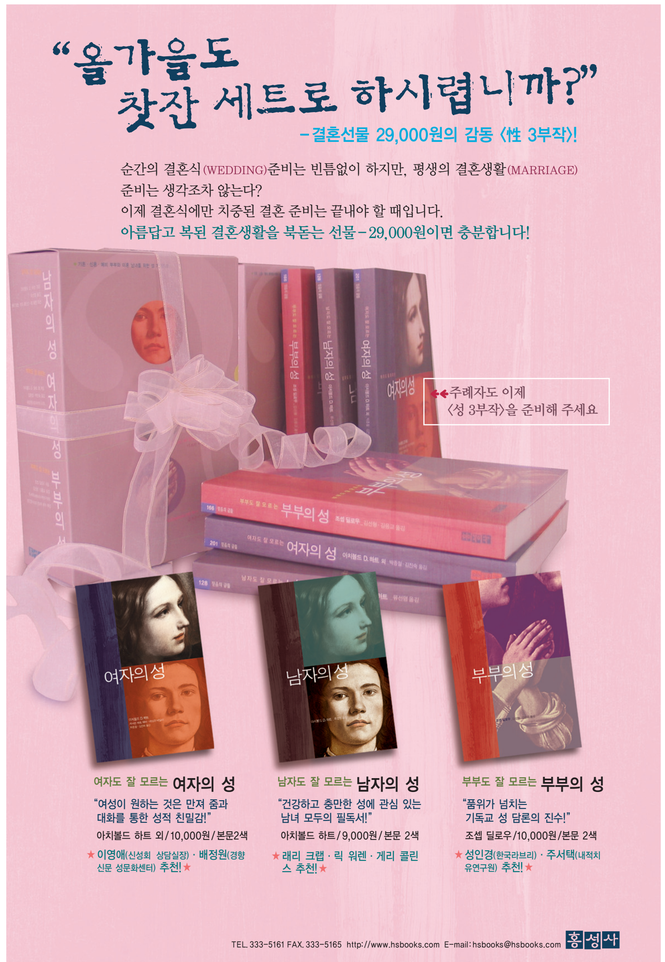
"이 책은 나를 매우 겸손하게 만들었다"

이 책은 4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째 부분에 이 책 제목을 가장 잘 반영하는 글들이 모여 있다. 글들의 제목들은 다소 급진적인 인상을 주지만, 그 내용은 결코 비성경적으로 급진적이 아니다. 성경에 철저히 충실하나, 타성에 젖은 기독교인들의 상식을 깨고 정신을 가다듬게 하는 관찰들이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수용하는 신학자라면 그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부분은 '발제를 위한 현장 소설' 인데, 심각하나 흥미로운 중편이다. 이미 소설을 써서 출판한 저자라 표현 능력과 글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한번 읽기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렵다. 아심으로 가득 찬 한 젊은이가, 운동권 출신으로 예수를 통해 변화된 지성인 친구를 만나 같이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그린 것으로 현대에 사는 젊은이들의 고뇌와 복음을 깊이 있고 현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3, 4 부에서는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수필들로 구성되어 있다. 내가 이 책에서 가장 감동을 받은 것은 정교수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좋은 직장을 그만 두고 중국 연변 과학기술대학의 자비량 교수로 떠나는 과정을 그린 "아바의 지팡이"란 글이다. 본인의 경험이요, 남다른 그리스도인의 사명감과 한 가장으로써의 인간적인 고뇌를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면 감동 받지 않을 수 없는 글이다.

요즘 신앙간증 서적들이 많이 출간되어 신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반가운 현상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고등교육을 받고 연구소나 대학이나 기업에 근무하는 그리스도인 전문인들은 이 책을 읽고 자신의 신앙을 한번 반성하고 측정해 볼 것을 권장한다. 이 책은 나를 매우 겸손하게 만들었고 신앙적 열등감을 갖게 하였다.

– '추천의 글' 에서

●손봉호/서울대 교수